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3 Serial No.129 2014.6. 1~15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3.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영향요인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이지연(Jiyeon Lee)[1], 그레이스 정(Grace H. Chung)[2*], 유조안(Joan P. Yoo)[3]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at the individual and dominant society levels.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marriage migrant women from China and Vietnam, classified their acculturation types according to their scores on acculturation attitudes, and perform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on acculturation types by entering marriage migrant women's individual and dominant society level factors as covariat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under integration(N=376), followed by assimilation(N=66), separation(N=60) and marginalization(N=48). Lower household income, lower sense of mastery, weaker ethnic identity and lower social support predicted assimilation as compared to integration. Less education, higher household income, weaker ethnic identity, lower family satisfaction and lower social support predicted separation as compared to integration. Finally, as compared to integration, marginalization was predicted by lower sense of mastery, lower ethnic identity and lower social support. This study expands the current scholarship on acculturation by examining acculturation as an indicator of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immigrants and by identifying factors that predict specific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주제어(Key Words) : 문화적응(acculturation), 문화적응태도(acculturation attitude), 문화적응유형(acculturation type), 결혼이주여성(marriage migrant women)

Ⅰ. 문제제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문화권을 접하게 될 때,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보이는 사람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유형이란 이주민 개인이 이주상황에서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므로(H. Choi, 2009),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을 도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 본 논문은 2010년도 SNU Brain Fusion Research Program 지원사업비로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 Grace H.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620, E-mail: gracechung@snu.ac.kr

서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 개인과 이주국 사회의 요인들이 이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개인이 둘 이상의 문화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에 양쪽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process) 자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그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통합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주자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그들의 문화적응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방식, 즉 문화적응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J. W. Berry, 1997), 이 때, 문화적응유형은 이주민이 자신에게 친숙한 고유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회와 그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용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를 드러내준다. 문화적응은 이주민의 건강상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과 심신적(psychosomatic)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J. W. Berry & U. Kim, 1988). 이러한 문화적응의 중요성 때문에 문화적응의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C. G. Ayres & Ganga Mahat, 2012; J. W. Berry, 2000; J.-H. Park & J.-K. Chung, 2007).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응개념은 실증연구에서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적용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J. W. Berry(2001)는 개인의 문화적응을 살펴볼 때, 이주국의 입장에서만 이주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모국의 문화에 대하여 유대감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이주국에 적응하고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건강하고 균형 잡힌 문화적응이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이차원적인 관점과 해석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Berry는 이주국에 대한 이주민의 적응만을 조명하는 일차원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교차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차원적 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적응을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특성을 단순히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문화적응유형별로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거나(Y. Lee & Y.-K. Lee, 2010; D.-H. Jang & K.-E. Lee, 2010; A. J. Lee & Y. S. Choi, 2011), 집단 내에서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쳐왔다(O.-K. Yang, Y.-S. Kim, & B.-H. Lee, 2007). 또는 문화적응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개인이나 가족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만 사용되었다(H.-S. Kim, 2012). 문화적응유형을 종속변수로 다룬 몇몇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을 일차원적 개념으로 점수를 매겨 연속변수로 설정하거나, 하위개념을 두어 개념을 변용하여 사용하였다(D.-H. Jang & K.-E. Lee, 2010; M. J. Kim & S. M. Shin, 2010). 한편, B. S. Kwon and B. R. Im(2013)은 문화적응을 이차원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적응태도를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쪽문화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만든 이차원적 모델의 장점을 잃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문화적응은 이주국의 문화만을 잘 수용하거나, 본국의 문화만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자문화전달태도가 모두 긍정적일 때 이주민 개인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차원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이주국 문화의 수용과 본국의 문화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유지와 한국문화수용을 모두 고려한 이차원적인 문화적응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사회적 특징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환경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려고 한다. J. W.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연구할 때,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민 개인의 변인과 이주국 사회의 변인이라는 두 차원이 모두 문화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문화적응의 개념적 모델에 따르면 이주민 개인의 변인과 이주국 사회의 변인은 이주민의 문화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을 이룬다. 이주국이 주류사회로서 이주민에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개인이 보이는 문화적응유형은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주류사회가 이주민이 모국 문화를 버리고 이주국의 문화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은 이주국의 태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J. W. Berry, 2000). 이 때, 이

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나 일반 국민들의 태도 등을 통해 거시적 사회의 태도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근접적인 사회가 이주민 개인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 개인에게는 거시적 사회의 특성들보다는 매일 직접 마주하는 미시적 사회의 특성들이 더 중요하고 유의미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J. W. Berry, 1997, 2000). 따라서 이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근접적인 사회적 맥락, 이를테면 가족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가 이주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J. W. Berry가 제시한 위의 개념적 틀에 따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요인과 이주국 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결혼이주여성 개인 요인은 문화적응유형별로 무엇인가?

[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이주국 사회 요인은 문화적응유형별로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적 집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집단은 변화하게 되고(R. Redfield, R. Linton, & M. J. Herskovits, 1936),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도 변화를 경험한다(T. D. Graves, 1967). 이 때, 상대적으로 덜 주도적인 문화집단과 그 구성원은 문화 간 접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J. W. Berry, 2001).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마주하여 문화접촉을 경험할 때, 그 개인은 다른 문화에 참여하는 방식과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문화적응태도(acculturation attitude)라고 한다(J. W. Berry, U. Kim, S. Power, M. Young, & M. Bujaki, 1989).

J. W. Berry(2001)는 모국문화유지와 이주국문화수용 정도가 이차원으로 교차되어 문화적응태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문화적응의 이차원적 모델을 제안하고,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전략이라는 4가지 문화적응유형을 모델에 포함시켰다(Berry, 2001). "통합유형"은 개인이 문화적응을 경험할 때,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에 모두 관심이 있는 문화적응유형이다. 통합유형은 이주민이 이주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주국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수용성을 보이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주국의 이러한 수용적인 태도는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유로 Berry의 문화적응모델에서 통합형은 가장 긍정적인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동화유형"은 이주민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주류사회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화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 "분리유형"은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지키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주변화유형"은 모국문화의 유지에도 관심이 없고, 새로운 문화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문화적응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류문화가 이주민에게 모국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동시에, 배제와 차별을 행하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유형이다(J. W. Berry, 2001).

주류사회가 이주민에게 특정한 문화적응태도를 보이도록 강요한다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특정 문화적응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사회가 개방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지에 따라서도 개인의 문화적응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J. W. Berry, 2000).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에는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이주국의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2.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이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다뤄지는 변수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로서,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이주민의 성격 혹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한 축을 이룬다. 다른 한축은 집단수준의 변수들로 구성되며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집단수준의

변수들은 곧 이주국 사회 변수를 의미하며, 이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와 같은 거시적 사회 변수나 이주민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지역사회와 가족과 관련된 미시적 사회 변수들이 포함된다(J. W. Berry, 1997). 본 연구에서는 이주국 사회 변수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근접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시적 사회 변수들만을 다루기로 한다.

1) 결혼이주여성 개인 요인

이주민의 연령과 적응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문화적응이 일찍 시작되면 적응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비교적 적게 겪기 때문이다(J. W. Berry, M. Storandt, & A. Coyne, 1984). 미국사회로 이주한 동아시아청소년들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C. J. Yeh(2003)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적응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연구에서도 통합유형의 평균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았다(H. Choi, 2009). 한국으로 이주할 당시의 연령과 문화적응의 관계를 본 연구는 국내에 부족하지만, 문화적응이 늦은 나이에 시작될수록 적응에 위험요소가 많고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국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S. Ebrahim, 199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연령은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주당시의 이주민의 연령은 문화적응유형과 큰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여러 측면에서 문화적응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이주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는 말은 적응할 시간과 기회가 많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거주기간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국의 언어실력은 향상될 것이고, 직업경험도 많아질 것이며, 사회적 관계망도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에 대한 이주민 스스로의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기간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바가 없다(J. W. Berry,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주기간과 문화적응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간의 동질성 정도 따라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문화적 차이(cultural distance)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했을 때의 갈등의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C. Ward, & W. Searle, 1991).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와 문화적응유형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에게서 주변화유형이, 상이한 문화를 지닌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서는 통합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H. Choi, 2009; O.-K. Yang et al., 2007). 한편,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긍정적 문화적응유형에,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부정적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A. J. Lee & Y. S. Choi,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이주민의 긍정적인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J. W. Berry, 1997). 먼저, 교육은 그 자체로 개인의 자원이 된다. 이를테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해결하는 능력 등이 교육에 의해서 함양될 수 있고, 이는 이주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또, 교육은 소득수준이나 직업지위, 사회적 관계망 등과 연관이 깊은 변수이기 때문에 문화적응과 관계가 높을 수 있다. 이렇듯 교육수준과 이주민의 적응은 이미 기존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동시에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할 목적으로 연구모델에 교육수준 변수를 포함시켰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경험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J. H. Cheon and J.-W. Choi(2012)는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직업이 없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M. Kim and A. Kim(2012)의 연구에서도 미취업상태일수록 가족관계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취업여성일수록 통합유형에 속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Yang et al., 2007; H. Choi, 2009), 통합유형일수록 직업탐색에 더 적극적이고, 취직능력도 더 뛰어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서(Al-Karim Samnani, J. A. Boekhorst, & J. A. Harrison, 2012), 직업경험과 긍정적인 문화적응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소득수준이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M. J. Kim and S. M. Shin(2010)은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O.-J. Chang and J.-Y. Park (2009)은 높은 가족소득이 다문화가족의 결혼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의 월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고, 우울집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H.-S. Kim(2012)의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O.-K. Ya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통합유형점수가 가장 높게, 주변화유형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바 있다.

자기통제감(Sense of Self-mastery)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기통제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 없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가로 삶의 터전을 옮겨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통제감은 결혼이주여성의 능동적인 문화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통제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S. Nolen-Hoeksema, J. Larson, & C. Grayson, 1999). 그러므로 자기통제감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유형이나 동화유형의 특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다문화사회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서,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초점을 두고 있다(J. S. Phinney, 1992).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결합이 이주민의 적응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J. S. Phinney, G. Horenczyk, K. Liebkind, & P. Vedder, 2001), 민족정체성이 인종적/민족적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 N. Mossakowski, 2003). 그러나 국내에는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을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한국어능력은 이주국인 한국사회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미국의 이주민연구에서도 미국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영어의 유창성이 사용되곤 한다(B. K. Finch, B. Kolody, & W. A. Vega, 2000).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어 수준은 가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졌으며(M. Kim & A. Kim, 2012), 문화적응유형별로 한국어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A. J. Lee & Y. S. Choi, 2011).

2) 이주국 사회 요인

가족은 이주국의 환경 중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접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본국 및 본국의 원가족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와 이주국인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때 이 가족은 이주국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일차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환경이다. 가족만족도는 본래 가족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척도인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근접환경인 가족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가장 근접한 환경인 가족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척도인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족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만족도와 관련한 결혼이주여성 연구는 매우 드물어서 문화적응과 가족만족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고, 가족관계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 검증을 시도한 K.-H. Bae and S.-J. Kim(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영역은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의 원만하게 적응하여 안정감을 갖게 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이기는 하나, G. H. Chung and J. P. Yoo(2013)의 연구결과는 가족관계의 질이 이주여성의 적응에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가족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루어져왔다. 외국의 다문화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미국 아시아 이주민 대학생들의 낙천주의 및 긍정적인 건강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C. G. Ayres & Ganga Mahat, 2012). 또,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 라티노들은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M. C. Hansen & M. P. Aranda, 2012). 국내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M. Kim & A. Kim, 2012),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었다(J.-H. Park & J.-K. Chung, 2007).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친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복지관의 선생님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이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다음으로 가깝게 접하게 되는 이주국의 환경으로서 결혼이주여성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주국의 근접환경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거시적인 요소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주국 사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2월 한 달 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제외)과 베트남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각각 3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과 가족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0)에서 수행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결혼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한정하여 국가별로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한 다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0년 인구통계 자료인 외국인 주민조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결혼이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밀집된 구와 군을 각 시도별로 선정한 뒤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표집 하였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남구, 남동구)와 부산광역시(사상구, 사하구, 진구)의 대도시 거주자 각각 100명씩 300명과, 경남・충남・전북의 읍·면·군 단위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각각 100명씩 300명, 총 600명의 여성이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에 표본이 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600)

		N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Age			19	58	30.66	7.83
Age at Arrival			17	55	26.17	6.49
Residence Period(month)			1.00	387.00	51.98	49.15
Country of Origin	China	300(50.0%)				
	Vietnam	300(50.0%)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7(1.2%)				
	Elementary school	65(10.8%)				
	Middle School	177(29.5%)				
	High School	275(45.8%)				
	College	70(11.7%)				
	Graduate School	6(1.0%)				
Occupational Experiences	Experienced	245(40.8%)				
	Never	355(59.2%)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53(8.8%)				
	1,000,000-1,999,999 won	203(33.8%)				
	2,000,000-2,999,999 won	206(34.3%)				
	more than 3,000,000 won	108(18.0%)				
	Do not know	30(5.0%)				

들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 표본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식당가, 쇼핑/시장가, 주택/아파트 단지에 가서 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때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는 모국어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모국어 설문지는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베트남인이 한국어 설문지를 중국어/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한 후, 중국/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각각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앞에 제시한 <Table 1>과 같이,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30.66세(SD=7.83)로 최솟값 19세, 최댓값 58세를 갖는다. 한국으로 이주할 당시의 연령은 평균 29.17세(SD=6.49)로, 최솟값은 17세, 최댓값은 55세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87개월(12년 3개월)까지이다.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가 27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177명(29.5%)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대학교가 70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직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245명으로 40.85%를 차지하고,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355명으로 59.2%를 차지했다. 가구소득은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06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03명(33.8%), 300만원 이상이 108명(18.0%)로 그 뒤를 이었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문화적응유형이다. 문화적응유형은 문화적응태도 점수에 의해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문화적응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U. Kim (1988)의 척도를 S. Lee(2006)가 수정한 문화적응태도척도(Acculturation Attitude Scale; AAS)가 사용되었다.[1] 이 척도는 3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7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황에 맞게 모국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거주국가를 '한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중에서 모국문화적응과 한국문화적응은 각각 15문항이다. 모국문화적응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중국/베트남의 가치와 전통을 실천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중국/베트남의 TV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등이 있으며, 한국문화적응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는 한국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강조한다.', '나는 한국인들의 자녀양육방식을 좋게 여긴다.'등이 있다. 문화적응태도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화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적응 각각의 평균점수를 교차 비교하여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서 2.5점을 기준으로 문화적응유형이 정해진다. 모국/한국문화적응 평균이 2.5점보다 모두 높으면 통합유형, 모국문화적응은 낮고 한국문화적응은 높으면 동화유형, 모국문화적응은 높고 한국문화적응은 낮으면 분리유형, 모국/한국문화적응이 모두 낮으면 주변화유형으로 분류된다. 문화적응태도 점수를 계산하여 얻은 값을 토대로 문화적응유형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통합유형은 1, 동화유형은 2, 분리유형은 3, 주변화유형은 4의 값을 할당하였다.

2) 독립변수

(1)결혼이주여성 개인수준 영향요인

이주당시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가, 교육수준, 직업경험, 가구소득, 자기통제감, 민족정체성, 한국어 능력을 결혼이주여성 개인수준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이 무학일 경우는 0, 초등학교일 경우는 1, 중학교일 경우는 2, 고등학교일 경우는 3, 대학교일 경우는 4, 대학원일 경우는 5의 값을 갖도록 하고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직업경험은 한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면 0,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직업경험이 있으면 1로 설정하여 범주형 변수로 지정하였다.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서 1은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100만원 미만, 2는 100-200만원 미만, 3은 200-300만원 미만, 4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나타낸다. 자기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L. I. Pearlin, E. G. Menaghan, M. A. Lieberman and J. T. Mullan(1981)이 개발한 Master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3이다. 자기통제감 평균값은 2.80점 (SD=.50)이었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J. S. Phinney(1992)가 개발한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MEI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8이다.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응답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민족정체성의 평균값은 2.66점 (SD=.46)이었다. MEIM과 Mastery Model 모두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교수 1인과 사회복지학 교수 1인이 번안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1) 이 척도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Lee. S. (2012). The impacts on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rovision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on paren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3*(1), 71-87.

거쳐 사용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영역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6이다.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의 평균값은 2.48점 (SD=.78)이었으며, 세부영역에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평균값은 각각 2.56점 (SD=.87), 2.46점 (SD=.86), 2.29점 (SD=.88), 2.61점 (SD=.86)이었다.

(2)이주국 수준 영향요인

가족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이주국 수준 영향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가족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ACES Ⅳ Package(D. H. Olson, 2011)에 포함된 Family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7이다.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3.22점 (SD=.62)이었다. Family Satisfaction Scale은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교수 1인과 사회복지학 교수 1인이 번안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Y.-J. Yoon(2001)이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3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이미 알고 있는 한국인의 수가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 개인이 한국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총합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알고 있는 한국인 친구와 다문화가족센터/복지관 선생님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두 점수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은 3.31점(SD=.6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4개의 유형(통합유형=1, 동화유형=2, 분리유형=3, 주변화유형=4)으로 나뉘고, 각 개인은 그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의 각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유형을 준거(reference)유형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의 준거가 되는 유형을 통합유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통합유형이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 중 가장 긍정적인 문화적응 유형이기 때문이며(J. W. Berry, 2001),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표본수를 가진 유형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개인 수준의 요인과 이주국 수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1개 당 50개의 샘플수가 필요하다는 통계적 제한을 고려하여(R. P. Burns & R. Burns, 2008, p. 570) 총 11개의 독립변수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Ⅳ. 연구결과

1.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별 분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표본 수는 600명이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의 결측치를 자동으로 제외한 뒤 분석에 선택된 표본 수는 550명이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유형이 가장 많았고(376명, 68.4%), 그 다음이 동화유형(66명, 12%), 분리유형(60명, 10.9%), 주변화유형(48명, 8.7%) 순이었다.

2.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다항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에 대한 결과 값을 동시에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의 <Table 3>에 제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통합유형을 준거(reference)유형으로 하여, 통합유형에 비해 각각의 문화적응유형에 속할 확률을 계산해서 보여준다. 즉, 이 결과는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이나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동화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서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낮은 가구소득,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감, 낮은 수준의 민족

Table 2. Selected Cases by Acculturation Type

	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total
Selected Cases	406 (67.7%)	69 (11.5%)	68 (11.3%)	57 (9.5%)	600 (100%)
Included in Analysis	376 (68.4%)	66 (12.0%)	60 (10.9%)	48 (8.7%)	550 (100%)

Table 3.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on Acculturation Types

	Predictor	Integration versus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Individual level	Age at arrival	.042	.027	2.379	1.042	-.028	.027	1.055	.972	-.058	.036	2.626	.944
	Residence period	-.002	.004	.250	.998	-.001	.004	.028	.999	-.004	.005	.796	.996
	Country of origin[1)]	-.775	.435	3.176	.461	-.303	.400	.572	.739	-.245	.449	.296	.783
	Education	.131	.192	.467	1.140	-.460*	.193	5.706	.631	.136	.226	.362	1.146
	Occupational experiences[2)]	-.540	.357	2.293	.583	.091	.374	.059	1.095	.558	.431	1.677	1.747
	Household income	-.632**	.192	10.835	.531	.313*	.160	3.834	1.368	.049	.192	.066	1.051
	Sense of mastery	-1.205***	.273	19.556	.300	.338	.271	1.551	1.402	-.726*	.310	5.486	.484
	Ethnic identity	-1.470***	.353	17.373	.230	-.902*	.363	6.184	.406	-2.037***	.401	25.843	.130
	Fluency in Korean	.273	.230	1.410	1.314	-.276	.226	1.488	.759	.255	.246	1.083	1.291
Dominant society level	Family Satisfaction	.151	2.640	.328	1.163	-.863**	.275	9.876	.422	-.427	.308	1.919	.652
	Social Support	-.492*	.250	3.881	.612	-.682*	.263	6.714	.506	-.633*	.300	4.465	.531
	Final Model -2LL	895.969											
	Nagelkerke R^2	.310											
	Chi-square	169.899***											
	Probability of Predicted	69.5%											

*p < .05, **p < .01, ***p < .001
[1)]reference=Vietnam [2)]reference=experienced

정체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구소득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odds ratio)는 약 0.5배 감소하여(Exp(B)=.531),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32, p<.005). 둘째, 자기통제감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3배 감소하여(Exp(B)=.300),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1.205, p<.001). 셋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2배 감소하여(Exp(B)=.230),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1.470,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6배 감소하여(Exp(B)=.612),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동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492, p<.05).

다음으로 분리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서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낮은 교육수준, 높은 가구소득, 낮은 수준의 민족정체성, 낮은 수준의 가족만족도 및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6배 감소하여(Exp(B)=.63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460, p<.05). 둘째, 가구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1.4배 증가하여 (Exp(B)=1.36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313, p<.05). 셋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4배 감소하여(Exp(B)=.406),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902, p<.05). 넷째, 가족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4배 감소하여(Exp(B)=.422), 가족만족도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863, p<.005).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5배 감소하여(Exp(B)=.506),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82, p<.05).

끝으로 주변화유형을 살펴보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낮은 자기통제감, 낮은 수준의 민족정체성, 낮은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자기통제감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5배 감소하여(Exp(B)=.484),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726, p<.05). 둘째, 민족정체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비는 약 0.1배 감소하여,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2.037,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하면 통합유형에 비해 주변화유형에 속할 오즈비가 약 0.5배 감소하여,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보다는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β=-.633, p<.05).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300명과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 3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국내 및 국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결혼이주여성 개인 수준과 이주국 수준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각각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장 긍정적인 문화적응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가 속한 통합유형을 준거유형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수준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민족정체성과 자기통제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었으며, 이주국 수준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가족만족도와 사회적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4.3배,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2.5배, 주변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7.7배나 증가했다.[2] 다시 말하면 높은 민족정체성은 가장 긍정적인 문화적응유형인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높인다고 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

2) 오즈비(승산비, 즉 속할 확률)가 1미만 일 때는 역수값을 계산하여 '속하지 않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K. L. Wuensch, 2014, p.16).

치고, 본래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외국인 아내 혹은 며느리를 만드는 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J.-Y. Jung, & S.-G. Chung, 2014).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바라볼 때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과 이주국인 한국의 문화적응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정체성은 자신의 본래 민족에 대한 관심 및 자부심, 소속감과 긍정적인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A. J. Umana-Taylor, A. Yazedjian, & M. Y. Bamaca-Gomez, 200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정체성을 높여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본국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여 이를 건강하게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3.3배, 주변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2.1배 높아졌다. 즉,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양쪽문화에 모두 높은 적응을 보이고, 자기통제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고유한 문화는 버리고 한국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데에만 치중하거나 혹은 양쪽 사회로부터 모두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감과 문화적응의 관계는 그동안 연구된 적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만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감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S. Nolen-Hoeksema et al., 1999)를 지지한다. 또, 자기통제감은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올바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문화적응유형과 연관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유의미했다. 먼저 교육수준부터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약 1.6배 증가하였다. 낮은 교육수준은 분리유형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높은 교육수준과 긍정적인 문화적응이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J. W. Berry, 1997). 한편, 소득수준은 이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1.9배 높아지는 반면, 분리유형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약 1.4배 높아졌다. 낮은 소득수준이 동화유형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는 높은 소득수준이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O.-K. Yang et al., 2007; O.-J. Chang & J.-Y. Park, 2009; M. J. Kim & S. M. Shin, 2010; H.-S. Kim, 2012; N. Krause, J. Bennett, & Than Van Tran, 1989)에 비추어볼 때, 통합유형에 비해서 동화유형이 덜 긍정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는 J. W. Berry(2001)의 문화적응이론 틀에 적합한 결과이다. 또,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동화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과는 방향이 상이하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여 동화유형에 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모국문화를 고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분리유형에 속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유형의 가구소득 평균이 4점 척도에 2.83점으로 가장 높은 것도 위의 해석에 어느 정도 힘을 싣는다(data not shown). 그러나 이 해석은 연구결과에 대한 추측일 뿐이며,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만족도가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약 2.4배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만족도가 낮은 여성일수록 통합유형보다는 분리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연구결과는 가족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한국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모국을 그리워하며 모국의 문화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만족도를 직접적인 변인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요인이 다문화가족의 부부 적응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D.-H. Jang & K.-E. Lee, 2011)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에 가족의 역량과 가족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다문화연구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이다. 미국의 라티노나 아시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의 목적 자체가 '결혼'인 독특한 이주민들이다. 이들은 가족단위로 이주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주국에서 생식가족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지지원이자 근접환경이며, 이주 초기에는 거의 유

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M. Sung, M. Chin, J. Lee, & S. Lee, 2013). 다시 말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은 처음 접하는 이주국 환경인 동시에,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에이전트(agent)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실천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역동을 고려하고,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을 만들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이들 가족의 건강성을 높일 때에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문화적응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동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1.6배, 분리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2.0배, 주변화유형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약 1.9배 증가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통합유형에 비해 덜 긍정적인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문화적응태도를 선택하고 특정 문화적응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가 개인의 특정한 선택을 강제한다는 J. W. Berry(2000)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 사회적 지지를 미약하게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보인다는 J.-H. Park and J.-K. Chung(2007)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방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문화적응유형에 비해 통합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국 수준의 영향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모든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연구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인적 변인만 볼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J. W. Berry, 1997; S. J. Schwartz, J. B. Unger, B. L. Zamboanga, & J. Szapocznik, 2010).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정책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국사회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냄으로써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적응유형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대상이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서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까지 이 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Korean Institute for Heath and Social Affairs, 2010)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중국과 베트남 출신은 조선족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반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을 출신국가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선행연구(M. Kim & A. Kim, 2012; A. J. Lee & Y. S. Choi, 2011)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한국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평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문화적응유형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독립변수들이 문화적응유형을 선행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표집에 의한 종단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문화적응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문화적응태도와 유형을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yres, C. G., & Mahat, Ganga (2012).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and optimism: Understanding posi-

tive health practices in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3*(3), 270-278.

Bae, K.-H., & Kim, S.-J. (2012).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regards to the influence that family income and job status have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3), 5-27.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Berry, J. W. (2000). Sociopsychological costs and benefits of multiculturalism. In J. Dacyl & C. Westin (Eds.), *Governance of cultural diversity* (pp.297-354). Stockholm: Centre for Research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15-631.

Berry, J. W., Storandt, M., Coyne, A. (1984). Age and sex differences in somatic complaints associated with depression. *Journal of Gerontology, 39*(4), 465-467.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07-236). London: Sage.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2), 185-206.

Burns, R. P., & Burns, R. (2008). *Business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using SPSS.* London: Sage.

Chang O.-J., & Park, J.-Y. (2009). A Study on marital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husbands. *Family and Culture, 21*(2), 1-27.

Cheon, J. H., & Choi, J.-W. (2012). Involvement of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social networks by employment statu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adjacent areas. *Journal of Women's Studies, 22*(1), 139-164.

Choi, H.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163-194.

Chung, G. H., & Yoo, J. P. (2013). U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adjustment among interethnic and interracial famili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41-253.

Ebrahim, S. (1992). Social and medical problems of elderly 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30*(s1), 179-197.

Finch, B. K., Kolody, B., & Vega, W. A. (200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exican-origin adults in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3), 295-313.

Graves, T. D. (1967). Psychological acculturation in a tri-ethnic community.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3*(4), 337-350.

Hansen, M. C., & Aranda, M. P. (2012). Sociocultural influences on mental health service use by Latino older adults for emotional distress: Explor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informal social sup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75*(12), 2134-2142.

Jang, D.-H., & Lee, K.-E. (2010).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Gender and Culture, 3*(1), 67-97.

Jang, D. H., & Lee, K. E. (2011). The effects of familial factors on the cultural adaptation of couple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area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1*(2), 103-139.

Jung, J.-Y., & Chung, S.-G. (2014).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Korea: assimilation or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7*(4), 121-142.

Kim, H.-S. (2012). Impacts of acculturation &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32*, 39-70.

Kim, M. J., & Shin, S. M. (2010). A study of the effec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on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 area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711-737.

Kim, M., & Kim, A. (2012). The impact of Korea immigrant women's resources on their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and life. *Family and culture, 24*(2), 64-100.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on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Kinston, Canada.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09*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83000-000 384-12). Seoul, Korea: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rause, N., Bennett, J., & Than Van Tran. (1989). Age differences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Psychology and Aging, 4*(3), 321-332.

Kwon, B. S., & Im, B. R. (2013). A study of effective factor on culture adaptive attitudes of marriage immigrants women in Daegu and Gyeongbuk. *Minjokyeongu, 53*, 130-152.

Lee, S. (2006). *Theorizing and testing models of community capacity and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U.S.A.

Lee. S. (2012). The impacts on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rovision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on paren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3*(1), 71-87.

Lee, Y., & Lee, Y.-K. (2010).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by residential a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1), 145-157.

Lee. A. J., & Choi, Y. S. (2011).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71-90.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3), 318-331.

Nolen-Hoeksema, S., Larson, J., & Grayson, C.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61-1072.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1), 64-80.

Park, J.-H., & Chung, J.-K. (2007).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395-432.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 – 510.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Samnani, Al-Karim, Boekhorst, J. A., & Harrison, J. A. (2012). Acculturation strategy and individual outcomes: Cultural diversity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2*(4), 323-335.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251.

Sung, M., Chin, M., Lee, J., & Lee, S.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26-240.

Umana-Taylor, A. J., Yazedjian, A., & Bamaca-Gomez, M. Y. (2004). Developing the Ethnic Identity Scale using Eriksonian and social identity perspectives.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4*(1), 9-38.

Yang, O.-K., Kim, Y.-S., & Lee, B.-H. (2007). A study on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foreign wives in Seoul. *Seoul Studies, 8*(2), 229-251.

Yeh, C. 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Yoon, Y.-J. (2001). *A Study on the cultural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Ward, C., & Searle, W. (1991). The impact of value discrepancies and cultural identity o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sojourners. *Interna-*

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2), 209-225.
Wuensch, K. L. (2014). *Binary Logistic Regression with PASW/SPSS.* Retrived from http://core.ecu.edu/psyc/wuenschk/MV/Multreg/Logistic-SPSS.PDF

□ 접 수 일 : 2014년 03월 06일
□ 심 사 일 : 2014년 04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5일